

보육시설에서의 활동분석을 통한 한국과 미국 유아의 기거양식 비교 연구

A Cross-Cultural Study on the Seating Style of Children between Korea and U.S.A Viewed from Activity Analysis in Child Care Centers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장 상 옥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ang, Sang-Oc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선행 연구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ating style of children between Korea and USA viewed from activity analysis in child-care centers. Observation and depth-interview method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Ninety-eight children aged from 38 to almost 62 months were observed for five minutes three times during an indoor free play period in Korea and USA in 2003 and 2004.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ostures of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Korean children maintained floor-seating postures longer than chair-seating and standing postures. The factors such as sex, age and physical environment influenced the children's seating style, while playing-type influenced their postu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children's seating style according to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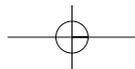
주제어(Key Words): 유아 기거양식(seating style of children), 보육시설(child-care center), 활동분석(activity analysis), 한국과 미국(Korea and USA)

I. 서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취하는 자세는 서구의 입식생활이 유입되기 시작한 이래로 상당 부분 변화되어 왔다. 이전에는 대부분 좌식으로 행해지던 취침, 식사, 단란, 공부, 휴

식 등 다양한 주생활행위가 근래는 입식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좌식과 입식의 기거양식은 새로운 문화의 도입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연령, 학력, 소득 등과 같은 개인행태적 요인(장상옥, 신경주, 1998), 주택형태, 주거평면, 가구·설비·기기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다.

Corresponding Author: Sang-Ock Ja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Principal Researcher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zwa-dong, Jinju 660-701, Korea Tel: 81-55-751-5643 Fax: 82-55-756-5637 E-mail: sojang@gnu.ac.kr



Hewes(1955)는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신체자세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어떤 어린이가 속해 있는 문화 관습적 환경이 어린이의 자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딱 조이게 만들어진 요람에서 자란 어린이는 이 환경으로 인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과의 관련에서는 의자 등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 입식자세가 더욱 빈번한 반면 그러한 가구가 없는 문화권에서는 좌식 자세가 우세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개인이 취하는 기거양식은 그가 거주하는 주변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를 취하는 방식은 민족 고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계승되어 습사리 변화되지 않는 요소(塩谷壽翁, 1997)로 알려져 있다. 즉, 어린 시기에 습득하여 지속시켜온 생활자세는 보편적으로 성인이 되어도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몸에 배인 좌식 생활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져 입식 침대생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장상옥, 신경주, 1995)와 입식의 서구문화권으로 이주하여도 일부 좌식생활이 유지되는 한인의 경우(이희봉, 1998)에서도 볼 수 있다. 반면, 근래 청소년은 입식가구의 사용으로 입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의 경향이 큰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의 경향을 보인다고 하므로 이로부터 보아 나이가 들어 이미 고정된 기거양식은 물리적 변화만큼 쉽게 변화하지 않으나 연령이 낮을 경우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어린이 시기에 형성된 기거양식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인의 기거양식은 어릴 때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거양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관련되며,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기거양식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이해할 때 더욱 명료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거양식의 연구 대상을 어린이로 할 경우 오늘날 점차 서구화되는 생활 속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어떤 기거양식을 취하게 될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장래의 공간계획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이루어진 기거양식 관련 연구(장상옥, 신경주, 1998; 안옥희, 정미란, 1999; 澤田知子, 1995)에서는 연구 대상이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일정 기간 받아 기거양식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성인이 주류를 이루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거양식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기거양식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좌식과

입식의 물리적 환경이 다른 문화비교 연구를 통해 기거양식에 있어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동일문화권인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기거양식을 비교 연구한 것(안옥희, 정미란, 1999)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거양식이 어린이 시기에 환경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아의 기거양식과 물리적 환경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보육시설 유아의 놀이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아울러 물리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가장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자세가 표현된다는 사실을 전제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기거양식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로 한국과 미국 유아의 기거양식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지어 비교분석하며, 셋째로 한국과 미국 유아의 놀이유형에 따른 기거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문화차이에 따른 기거양식의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의 기거양식 변화와 물리적 환경의 제공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유아의 기거양식 파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계획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1. 기거양식의 분류

기거양식이란 기거와 행동에 관한 양식으로 좌식과 입식이라는 생활행위 시 일어나는 신체 자세 측면을 의미한다. 기거양식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좌식은 바닥면이나 좌식 가구를 신체지지구로 하고, 입식은 입식가구 등을 신체지지구로 분류한다(今井範子, 1986). 그러나 이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기도 하는데 塩谷壽翁(1997)은 백과사전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분석을 통해 생활행위 시의 신체자세를 앉은 높이에 따라 바닥에 접촉시키고 앉은 자세부터 선 자세까지 8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면·바닥에 앉기(정좌), 지면·바닥에 꾸그리고 앉기, 지면·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기, 좌면이 낮은 의자에 앉기, 바닥·지면에서 낮은 높이의 것(판 등)에 앉기, 좌면이 높은 의자에 앉기, 바닥·지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대 등)에 앉기, 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신체자세의 이해에 도움을 주나 좌식과 입식을 기준으로 하는 공간계획의 차원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

거양식을 크게 좌식과 입식으로 구분하고 좌식은 바닥에 앉은 자세, 입식은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분류하고자 한다. 단, 놀이유형과 기거양식의 파악에서는 입식을 선 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재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기거양식과 환경

기거양식은 민족과 지역뿐만 아니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으며 문화 속에서 전승된다. 따라서 기거양식은 민족 고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해지는 주생활의 여러 요소와 함께 계승되므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러한 신체동작의 방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민족 간에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며 민족 고유의 주생활을 기반으로 개별성을 가진다(塩谷壽翁, 1997). 그러면 기거양식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면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개인행태적 환경요인 등이 있다.

자연적 환경요인으로는 기후, 지형, 식물의 생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이 기거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습기가 많고 눈이 잘 오는 기후와 진흙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바닥에 앉는데 지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바닥에 앉기 쉽다. 또 풀의 길이가 긴 목초지에서는 서서 가축 떼를 돌보아야 하나, 풀의 길이가 짧은 곳에서는 바닥에 앉아서도 볼 수 있으므로(Hewes, 1955: 232; 山折哲雄, 1981: 32-36) 이러한 요인들이 기거양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으로 보면 문화권에 따라 기거양식이 다르다.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 문화권에서는 좌식을 중심으로 주생활이 전개되나, 중국,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입식 중심이다(今井範子, 1986). 그러나 문화에 따라 이미 형성된 기거양식도 새로운 이질 문화가 유입되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에 서구문화가 유입된 개화기 이래 기거양식이 변하게 된 것과 서구문화권으로 이주한 한국인(조성희, 1996; 이희봉, 1998; 정무용, 2001), 국내에 거주하는 서구인(장상옥, 신경주, 2004)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화적 요인에 따른 기거양식의 지속과 변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적,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기거양식에 영향을 미침에 대하여 물리적 환경요인인 주거의 유형과 평면, 공간의 면적, 창의 높낮이와 위치 및 형태, 가구 형태, 정원 형태 등은 기거양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Rapoport (1969:63)는 앉는 방식의 차이가 생활습관 및 주거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세는 운반기구, 복장, 가구의 특성과 모양, 찬장, 옷장, 거울, 램프 등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의자의 높이는 앉은 사람의 눈높이를 결

정하게 되어 창의 높낮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원의 유형까지 변화시키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이렇게 형성된 물리적 환경은 인간의 기거양식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 물리적 환경과 기거양식은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개인행태적 환경요인은 소득, 연령, 학력 등으로 선행연구(Hewes, 1955; 今井範子, 1986; 澤田知子, 1995; 장상옥, 신경주, 1998)에 의하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의자나 침대 등의 가구를 많이 사용하는 입식경향임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요인도 기거양식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유아 놀이의 유형

놀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놀이 특성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놀이는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하며, 활동적이고, 즐거운 것이며, 자발적이고 내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규칙 지배적이고, 일화적인 것(장혜순, 2004: 17-18)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유아놀이의 유형은 유아의 신체 자세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스밀란스키(Smilansky, 1968)의 놀이유형을 준거로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의 유형을 참고하여 기능놀이(functional play), 구성놀이(constructive play), 역할놀이(dramatic play), 교육적놀이(규칙 있는 게임 포함)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능놀이는 사물을 가지고 혹은 사물 없이 운동의 움직임의 계속 반복하는 놀이이며 뛰기, 모으고 부수기, 물건 또는 자료를 조작하기가 해당된다. 구성놀이는 사물(블록) 또는 자료(모래, 점토, 물감)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무엇을 만드는 놀이이다. 역할놀이는 역할이행 또는 가상화하는 놀이로 자동차 운전하는 척하기, 연필로 주사 놓는 척하기 등이 해당된다. 교육적놀이는 교사가 유아에게 부과한 과제, 색칠하기, 컴퓨터, 교육적 완구 등의 교육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미리 정해지거나 혹은 새로 정해진 규칙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하면서 진행되는 놀이인 판넌 맞추기, 카드게임 등 규칙이 있는 게임 등도 해당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지역 및 대상 집단

본 연구 대상은 한국과 미국 보육시설 유아이다. 한국의 보육시설은 경남의 중소도시인 진주시에 소재한 A, B, C 세 시설이며, 미국의 보육시설은 동부 뉴욕 주의 Ithaca 시에 위치한 대학교 부설 D 시설과 교회부설 E 시설로 총 5개 시설이다.¹⁾ 관찰한 학급의 수는 E 시설을 제외하고 각 시설마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4호, 2006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변 인	시설	학급	한 국	미 국
보육시설별 관찰 사례횟수	A	a	30(16.9)	
		b	30(16.9)	
	B	c	30(16.9)	
		d	30(16.9)	
	C	e	30(16.9)	
		f	27(15.5)	
D	g		45(38.5)	
	h		42(35.9)	
E	i		30(25.6)	
	계		59명×3회 =177(100)	39명×3회 =117(100)
성 별	남 여		30(50.8) 29(49.2)	17(43.6) 22(56.4)
		계	59(100)	39(100)
	연 령 (개월)	48개월 이하 49개월 이상 평 균	26(44.1) 33(55.9) 50.5개월	20(51.3) 19(48.7) 47.5개월
	계	59(100)	39(100)	

다 2학급씩으로 총 9개 학급을 관찰하였다.

연구대상 집단은 한국은 A, B 시설에서는 각 20명씩, C 시설에서는 19명의 총 59명을, 미국은 D 시설에서 29명과 E 시설에서 10명의 총 39명을 대상으로 모두 98명을 관찰하였다(표 1).

관찰 사례 횟수는 한국은 3개 시설에서 6개 학급 총 59명을 1인당 3회씩 177회분의 관찰을 하였고, 미국은 2개 시설에서 3학급 39명을 1인당 3회씩 총 117회분을 관찰하였다.

성별 구성을 보면 한국은 남아 30명, 여아 29명이나 미국은 남아 17명, 여아 22명으로 한국은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미국의 경우는 여아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한국은 40개월~62개월 미만(평균 월령 50.5개월)이나 미국은 38개월~60개월 미만(평균 월령 47.5개월)으로 한국 유아의 월령이 3개월 정도 높은 편인데 한국은 49개월 이상이 다소 많고, 미국은 48개월 이하와 49개월 이상의 비율이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방법은 관찰(예비관찰과 본관찰)을 기본으로 기타 필요한 자료는 교사와 면담을 하고,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연구자가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예비관찰은 한국보육시설에서는 2003년 10월 27일~11월 1일 사이에 A 시설 8명, B 시설 2명, C 시설 4명, 미국의 보육시설에서는 2003년 10월 4일~10월 6일에 D 시설 4명, E 시설은 2명의 총 20명의 유아를 실내 자유놀이시간에 각 유아 당 5분씩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 예비관찰 내

용을 분석하여 관찰에 적절한 시간대, 대상 선정, 기거양식 범주를 고안하였다.

본 관찰은 한국은 2004년 4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국은 2003년 10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총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관찰 요일은 유아의 놀이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를 감안하여 첫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비교적 안정된 요일에 관찰하였다. 관찰을 위한 전 단계로 한국 시설에서는 원장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였고, 미국에서는 보육시설 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찰 대상 유아의 부모에게 관찰 동의서를 배부하여 관찰을 허락한 유아만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였다. 관찰 시 대상 어린이가 결석 등으로 등원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다음 날 다시 관찰하여 총 3회 관찰을 수행하였다.

관찰시간대는 유아의 놀이집중력이 저하되는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실내 자유놀이시간에 행했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에서는 보통 등원시간인 9시 전까지 자유놀이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일찍 등원하는 소수의 유아만 놀게 되므로 전체 유아의 다양한 놀이유형과 신체 자세의 관찰이 어렵다. 따라서 관찰시간대는 여러 명의 활발한 놀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학급의 유아 모두가 모이는 시간대인 10~11시로 선택하여 관찰하였다.²⁾ 이 시간대는 유아 보육시설에 등원한 후 시설의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적응된 시점으로 관찰에 적합한 시간임을 예비관찰에서 확인하였다.

유아 관찰은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각 유아 당 하루에 5분씩 3일에 걸쳐 총 15분을 촬영하였는데, 주로 연속된 화, 수, 목요일에 이루어졌다. 한 유아 당 연속한 3일간의 3회 관찰은 유아의 놀이 행동이 어느 하루에 편중되는 것을 피하고 비교적 고른 행동 샘플을 얻기 위해서이다. 관찰은 캠코더, 현장 노트 등을 활용하여 놀이장면을 다각도로 파악하였다. 자료 수집과 기록을 위해 사용한 캠코더는 유아의 놀이행동에 근접하지 않고도 자연스런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놀이 자세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관찰 도구이다. 또한 분석 시 동일 상황의 반복 관찰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들의 놀이 자세를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도움이

- 1) 비교연구대상 도시인 진주시는 연구자의 거주지역이므로 장기간이 요구되는 관찰 특성상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미국의 Ithaca시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거주하였던 도시로 비교적 그 지역 사정에 익숙하고, 도시 규모도 작아서 진주시와의 비교에 무리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과 미국 보육시설에서는 적절한 관찰 시간대를 위하여 원래 일정을 조정하여 자유놀이시간을 10~11시로 배려하여 관찰은 거의 이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의 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9:30~11시 관찰도 일부 있었다. 어린이가 처음 등원한 10~15분 정도는 어색하여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관찰하였다.

되었다. 아울러 관찰 기간 중 수시로 교사와 비구조화된 면담을 병행 실시하였다. 이외에 보육시설의 실내외를 사진촬영하고 실내의 평면, 가구 량, 가구배치, 활동영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보육시설의 평면은 한국의 경우는 진주시청에서, 미국은 시설관계자를 통해 입수가 가능했던 D시설의 평면만을 확보하였다.

3. 자료의 분석

관찰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각 유아의 5분 놀이행동 동안 취한 자세는 대체로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의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바닥에 앉은 자세는 쪼그려 앉은 자세, 바닥에 누운 자세가 포함되며, 의자에 앉은 자세는 의자에 완전히 앉거나 걸터앉은 도구를 사용하여 앉은 경우, 의자에 살짝 엉덩이를 걸친 경우 등 의자나 의자 높이의 용구에 앉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또 선 자세는 서 있거나 달러가거나 걷거나 하는 자세를 포함한다.

자료의 코딩은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시켜 각 유아의 놀이 자세를 취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즉,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의 각 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코딩하였다. 유아의 놀이유형은 유아의 5분 놀이 동안 가장 지배적이고 지속된 놀이를 중심으로 기능놀이, 구성놀이, 역할놀이, 교육적놀이를 구분하고 이 때의 지배적인 자세를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분석 사례 수는 총 98명 유아를 3회 관찰한 5분짜리 동영상 294회분이다.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아의 일반적인 사항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적용하였고, 한미 유아의 기거양식 지속시간의 차이는 입식과 좌식으로 구분하여 t-test, ANOVA,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을 적용하였다. 입식에는 선 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를 합하여 계산하였고 좌식은 바닥에 앉은 자세 그대로를 계산하였다. 놀이유형에 따른 기거양식은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의 3가지로 구분하여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3가지 자세의 구분은 놀이유형을 파악하기에 더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한국과 미국 보육 시설의 물리적 환경

1) 보육시설의 개요

한국의 조사대상 지역인 진주시는 중소도시로 인구는 약 34만이다. 보육시설별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A 시설은 단독건물로 주택가에 인접한 공원 내에 위치하여 조용하며 수목 등 자연환경의 활용도가 뛰어나고 외부 놀이터가 넓은 장점이 있다. B 시설도 단독시설로 주택가에 위치하는데 보육시설을 둘러싼 주변 도로의 교통 소음은 다소 있으나 넓은 모래장 및 외부 놀이터가 넓은 점이 장점이다. C 시설은 타시설의 일부로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단지역에 위치하나 조용하며 외부 놀이터는 약간의 놀이시설과 주차장 공간으로 구성되어 매우 협소한 편이다.

미국의 관찰 대상 보육 시설이 위치한 Ithaca시는 소도시로 인구는 약 3만 정도이다. D 시설은 대학에 부설되어 가정대학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 놀이터는 넓은 편이다. E 시설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종교기관 부설로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자체에 부속된 외부 놀이공간은 없으나 길 건너의 인접한 작은 공원을 야외놀이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보육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A와 C 시설은 각각 1:15, B 시설은 1:20이었고, 미국의 D 시설은 1:5, E 시설은 1:7.5의 비율로 교사 1명 당 유아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미국의 시설에 비하여 두 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2> 한국과 미국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

보육시설	한 국			미 국	
	A	B	C	D	E
소재지	경남 진주시			New York주 Ithaca시	
설립주체	국·공립	국·공립	시 지정	대학부설	종교기관
시설위치	주택가	주택가	공단지역	대학교 내	시내중심
건물유형	단독건물	단독건물	타 시설 일부	타 시설 일부	타 시설 일부
층 수	2	2	1	1	지하
총학급(실)수	11	10	7	2	3
전체유아	151	150	124	32	45
학급당유아수	15	20	15	15	15
교사:유아	1:15	1:20	1:15	1:5	1:7.5

2) 기거양식 관련 교실환경 특성

기거양식과 관련된 교실의 물리적 환경 요인은 교실크기, 바닥마감재, 난방방식, 실내의 신발 착용 여부, 활동영역 및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3>.

(1) 교실크기, 바닥마감재, 난방방식, 실내의 신발 착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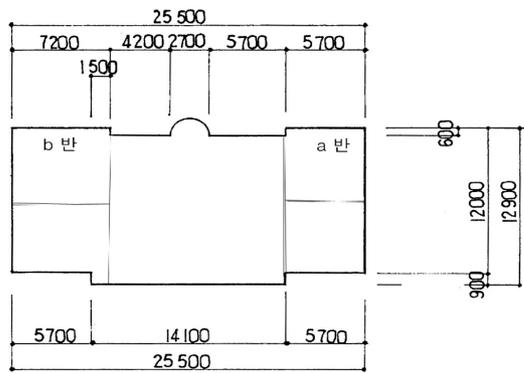
교실의 평면을 보면 한국의 경우가 미국에 비하여 면적이 협소하며 교실크기와 유아의 밀도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가 더 높은 편이다<그림 1>.

교실바닥의 마감재는 한국의 경우에는 합성수지장판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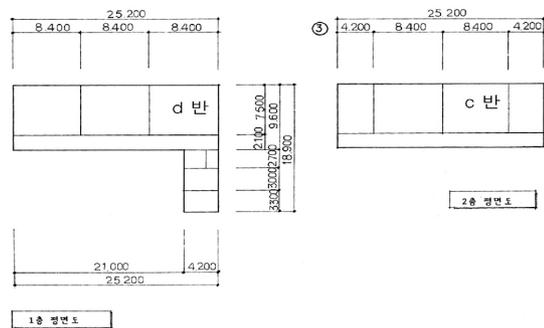
위에 일시적으로 까는 천 매트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타일과 블록 영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처럼 퍼거나 접어 쓰는 용도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 D 시설에는 카펫을 블록놀이 영역에 깔아두었으나, E 시설에서는 바닥의 반 정도에 깔아두었다<그림 2>.

난방방식은 한국의 경우는 세 시설 모두 좌식생활에 적합한 바닥난방이나 미국의 경우는 입식생활에 맞는 온풍난방을 채택하여 기거양식에 따른 난방방식의 차이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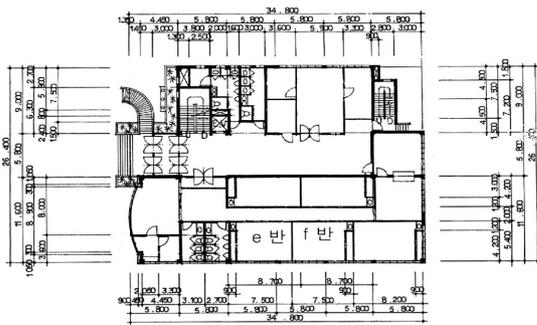
실내의 신발 착용 여부를 보면 한국의 보육시설에서는 실 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도록 출입구 부근에 신발장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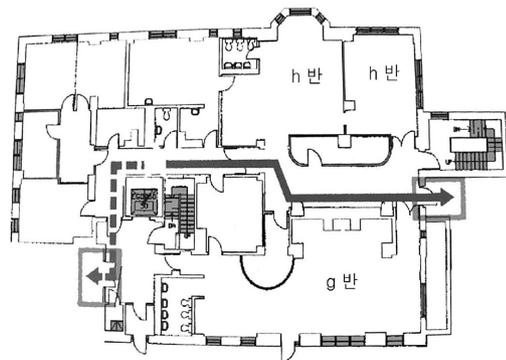
한국 A 시설



한국 B 시설



한국 C 시설



미국 D 시설

<그림 1> 보육시설의 평면과 관찰 학급

<표 3> 한국과 미국의 보육시설 교실 환경 특성

	한 국			미 국		
	A	B	C	D(g반)	D(h반)	E
바닥재	합성수지장판+천 매트(일시적)			합성수지타일+부분카펫(블록영역)		
난방	바닥난방			온풍난방		
신발착용여부	벗음			신음(일부 벗는 경우 있음)		
활동영역 개수	2개	3개	3개	11개	14개	6개
활동영역 경계	불명확			명확	명확	명확+불명확



합성수지재+천 매트
(한국 A보육시설)



합성수지타일+카펫(부분)
(미국 D보육시설, g반)



합성수지타일+카펫(반)
(미국 E보육시설)

〈그림 2〉 바닥 마감재 차이



〈그림 3〉 교실 내 신발 바꾸니

런되어 있어 모든 유아들이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미국의 경우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대로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경우 유아들이 벗어둔 신발을 수납할 신발장은 없었으나 D 시설의 h 교실에는 벗은 신발을 담아두는 신발바구니가 출입구 가까이 마련되어 있었다(그림 3). D와 E 시설의 유아 중 일부는 가끔씩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바구니가 없는 반에서는 교실 바닥의 여기저기에 벗어두는 것이 관찰되었다.

(2) 활동영역

교실에서 놀이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동영역은 테이블, 의자 등 활동을 위한 가구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활동영역의 개수는 한국의 경우는 A시설의 a, b 반은 2개인 반면 B와 C 시설의 c, d, e, f 반은 3개이다. 미국의 경우, D 시설의 g 반은 11개, 두 개의 연속된 방으로 이루어진 h 반은 14개이며, E 시설은 7개가 있었다(표 3).

이러한 고정된 영역 이외에 천 매트를 깔 일시적인 비고정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보육시설의 경우에 제공하고 있다. 이 매트는 주로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바닥 면에서 놀 때 깔고 그 외는 접어 두는 융통적인 놀이영역으로 우리의 좌식생활양식을 반영한 공간 사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고정영역은 없는 경우(B 시설의 d 반), 1개(A 시설과 C 시설), 3개(B 시설의 c 반)로 다양한데 이는 테이블과 의자 등 가구를 둔 공간을 제외한 여유 공간에 따라 달라졌다. 즉,

d 반의 경우 한 개의 교실을 주름 커튼으로 분리시켜 두 개의 학급으로 사용하므로 면적이 좁아서 천 매트를 깔 공간적 여유가 없다. 반면 미국의 보육시설에는 융통적인 천 매트 대신에 고정화시킨 카펫이 블록놀이 영역에 깔려 있다. 공통적으로 한미 양국의 보육시설에 사용된 천 매트나 카펫은 블록 놀이를 위한 영역에 깔려 있었는데 이러한 놀이는 바닥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활동영역의 경계는 교구장, 책장 등을 세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관찰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먼저 한국의 교실은 필요 시 바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성(轉用性)이 있는 공간이므로 활동영역은 여타 공간과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보육시설의 면적은 한국에 비하여 넓고 입식생활의 특성인 기능에 따른 실 사용의 경향이 보인다. 따라서 활동영역은 가구나 설비, 파티션으로 구분되어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고 가구의 기능에 따라 거의 고정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모래놀이 상자(sand box)나 물놀이 상자(water box) 영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입식생활을 하는 미국에서는 기능별 여러 활동영역이 확보되어 영역의 경계가 보다 명확한 반면, 좌식생활을 하는 우리나라의 교실에서는 영역별 기능이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융통적으로 사용하므로 경계가 뚜렷할 필요가 없다(그림 4).

활동영역의 명칭은 〈표 4〉에 제시되었다.³⁾ 한국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놀이에 따라 활동영역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영역의 명칭에 대응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3) 각 시설별 활동영역의 명칭은 보육시설 교사와 면담을 통하여 그들이 정의하는 용어 그대로 기술하였다. 보편적으로 실내 활동영역은 언어, 과학, 수·조작, 도서, 실내 대근육활동, 목공놀이, 쌓기놀이(작목), 조형, 음률(음악), 역할놀이(상징), 요리, 모래놀이, 물놀이 영역(최경숙, 1988; 최목화, 최병숙, 유옥순, 박선희, 이정희, 박경옥, 2002)으로 불리고 있다.



활동영역 경계가 명확한 경우
(미국 D 보육시설)



활동영역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한국 B시설)

〈그림 4〉 활동영역 경계의 예

〈표 4〉 활동영역의 명칭

나 라	활동영역(area)	
한 국	조작, 독서, 미술, 언어, 음률	
미국	D	block, discovery and science, grain and sensory, writing, art, water, snack(playdoh), music and listening, book, home and living, dramatic play
	g반 h반(R1) (R2)	block, housekeeping, book, art, snack, water, easel, writing writing, small unit block, manipulates, reading, music shops, discovery
	E	manipulate 1(Lego), manipulate 2(puzzle), art · eating · project, sand, book, block

〈표 5〉 한미 보육시설의 가구보유 정도

시 설	A		B		C		D		E
	a	b	c	d	e	f	g	h	i
테이블+ 의자	8인용(2)	8인용(2)	8인용(2) 6인용(1)	10인용(1) 8인용(2)	6인용(2) 4인용(1)	6인용(2) 4인용(1)	6인용(2) 5인용(1) 4인용(1)	4인용(5)	8인용(1) 4인용(1)
소파 및 휴식의자							.2인용(1) 불박이거 자형5인용(2)	.3인용좌식 소파(1) .흔들의자(3)	.1인용소파(5) .1인용의자(5)
교구장, 책장, 커비, 옷장	(5)	(6)	(5)	(5)	(4)	(5)	(11)	(17)	(7)

() 안의 숫자는 개수임.

(3) 가구

기거양식을 좌우하는 가구인 테이블과 의자 등의 보유량을 보면(표 5), 미국의 경우가 한국에 비하여 많은 편인데 테이블과 의자 이외에 소파, 흔들의자, 1인용 의자 등이 있다.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를 보면 한국의 A, B 시설의 각 반에는 대체로 8인~10인 단위로 앉을 수 있게 테이블을 배치한 반면, C 시설에서는 4인용 1개, 6인용 2개를 두어 소단위로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D 시설의 g반은 4, 5, 6인용 테이블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h반은 4인용만 5개가 있어 소집단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설의 경우는 활동영역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각 활동을 지원하는 가구가 상당한 정도로 구비되어 있다. D 시설보다 면적이 작은 E 시설은 4인용과

8인용이 각각 1개씩 배치되어 교실 면적으로 인해 테이블의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구장, 책장, 커비, 옷장 등의 가구 역시 미국의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이외에 한국의 경우는 TV와 피아노를 둔 경우가 보편적이거나, 미국의 경우는 모래놀이 상자와 물놀이 상자를 구비하고 있다. 또 시설의 조건에 따라 세면대와 싱크대가 추가되기도 한다.

종합하면 미국의 보육시설에서는 가구를 주축으로 활동을 하는 입식이므로 이를 지원하는 가구의 양과 종류가 한국의 시설에 비하여 더 많고, 영역별로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물리적 환경이 배치되나, 한국의 경우는 좌식생활로 인해 바닥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테이블을 대집단용으로 배치하여 면적 점유율이 높은 여러 개의 소집단용 배치는 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한국과 미국 유아의 기거양식 비교

1) 한국과 미국 유아의 전반적인 기거양식

유아의 신체자세를 입식과 좌식으로 분류하고 두 나라 유아의 자세를 t-test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한국유아는 입식과 좌식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입식이 약 3분가량, 좌식은 2분 이상이었다. 미국유아는 입식(221.6초)이 4분 가까이 되며 좌식(78.3초)은 1분 이상으로 그 차이가 더 뚜렷하였다. 이로 보아 한국유아는 좌식보다 입식으로 지내는 총 시간이 길고, 미국유아의 경우는 입식이 보다 더 명확함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유아의 기거양식을 비교해보면 한국 유아는 미국 유아에 비하여 좌식시간이 유의적으로 더 긴 반면, 미국유아는 입식시간이 유의적으로 더 길었다. 이로써 보육시설의 가구량, 바닥마감재, 난방방식 등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기거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기거양식 비교

한국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거양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반면 미국 유아의 경우에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7>).

한국의 경우 남아는 좌식과 입식 자세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 좌식(96.2초)과 입식(199.6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여아는 입식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여자자녀(92%)는 남자자녀(53.5%)보다 침대 사용을 더 희망한다는 연구결과(김종인, 1995)와 관련지어 볼 때 기거양식의 성별차이는 유아기에도 존재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국유아의 성별 비교를 보면 좌식시간은 남아가 여아보다 길고, 입식시간은 여아의 경우가 더 유의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놀이 유형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관찰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레고 조립 등의 놀이를 많이 하였으나 여아의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퍼즐을 맞추거나 이야기하기, 게임하기, 글쓰기, 미술 작업을 하는 등 놀이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Waddle(1999)의 연구에서 남아는 바닥에서 장난감, 블록, 바퀴가 달린 장난감을 밀고 당기는 놀이를 선호하는 반면, 여아는 테이블위에서 색칠하기, 퍼즐하기, 인형 갖고 놀기를 선호한다는 성별 놀이유형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남아와 여아 모두 좌식과 입식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놀이 시는 입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거양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입식은 성별에 관계없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기거양식 비교

연령에 따른 기거양식을 보면 한국 유아의 경우 48개월 이하에서는 좌식과 입식의 시간이 비슷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49개월 이상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입식의 시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거양식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표 7>). 이는 만 5세 이후부터는 취학 전 학습 준비 단계로 진입하여 교육적인 활동이 많아지

<표 6> 한국과 미국 유아의 기거양식 차이 M(SD): 초

구 분	좌식 지속시간	입식 지속시간	t-value
한국 유아	131.8(116.3)	168.2(116.3)	-2.080*
미국 유아	78.3(92.9)	221.7(92.9)	-8.344***
t-value	4.170***	-4.170***	

*p<.05, ***p<.001

<표 7> 유아의 성별, 연령 별 기거양식

M(SD) 단위: 초

구 분	구 분	좌식지속시간	입식지속시간	t-value
한국 유아	남	166.6(104.9)	133.4(104.9)	1.506
	여	95.8(117.1)	204.2(117.1)	-4.318***
	t-value	4.244***	-4.244***	
미국 유아	남	81.4(96.2)	218.6(96.2)	-5.092***
	여	76.0(91.0)	224.0(91.0)	-6.613***
	t-value	.315	-.31	
한국 유아	48개월 이하	154.8(117.8)	145.2(117.8)	.362
	49개월 이상	113.7(112.4)	186.3(112.4)	-3.215**
	t-value	2.368*	-2.368*	
미국 유아	48개월 이하	89.9(100.4)	210.1(100.4)	-4.639***
	49개월 이상	66.2(83.4)	233.8(83.4)	-7.583***
	t-value	1.382	-1.382	

*p<.05, **p<.01, ***p<.001

기 때문인데 글씨를 쓰거나 학습 관련 퍼즐을 맞추는 등의 활동이 상당히 관찰되었다. 또한 좌식은 48개월 이하에서 그 지속시간이 유의적으로 길었으나 49개월 이상에서는 입식의 지속시간이 유의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미국 유아의 경우에는 48개월 이하와 49개월 이상 모두 입식의 시간이 좌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길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각 좌식과 입식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식의 경향을 띄는 한국 유아와는 달리 연령 증가에도 기거양식은 입식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4) 보육시설별 기거양식의 비교

보육시설에 따라 유아의 기거양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표 8). 유아의 좌식과 입식 시간은 한국의 각 시설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미국의 시설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A 시설과 미국의 D, E 시설 간에, 또 B 시설과 D 시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각각 A, B 시설 유아의 좌식시간이 D, E 시설보다 더 지속됨과 동시에 입식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반면 한국 C 시설의 유아가 취하는 좌식과 입식시간은 미국 시설의 유아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유사한 기거양식으로 볼 수 있다. C 시설의 경우는 한국의 다른 시설에 비하여 테이블의 개수가 많고, 테이블 배치는 D 시설과 같은 4인 정도의 소그룹 단위로 배치하여 입식

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유아의 기거양식에 관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놀이유형에 따른 기거양식

유아가 취하는 기거양식은 놀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놀이유형을 기능놀이, 구성놀이, 역할놀이, 교육적 놀이로 구분하고 기거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놀이유형에 따라 기거양식은 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앉은 자세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유아의 놀이 유형과 기거양식의 전반적 경향

먼저 한국과 미국유아의 놀이 유형을 보면(표 9), 대체로 미국 유아의 놀이가 한국의 경우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었다. 이러한 놀이의 차이는 문화적 요인 외에 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의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교실 면적이 미국에 비하여 좁아 가구 및 다양한 놀잇감의 배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구성놀이에서 한국의 경우는 레고 등 작은 블록조립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면적이 큰 미국 D 시설의 경우는 큰 목재 블록을 이용하여 집짓기, 자동차 만들기, 길 만들기 등의 스케일이 큰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E 시설의 경우는 D 시설보다 면적이 작아서 큰 목재블록보다는 레고같은 작은 블록 놀이가 많은 편이었다.

기거양식에 따른 놀이유형을 보면(표 10),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기능놀이는 선 자세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놀이 특성 상 신체적인 움직임이 수반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구성놀이는 주로 바닥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 유아는 레고 등 블록 조립을 하는 놀이가 주류를 이루었다. 역할놀이는 양국 유아 모두 서거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적 놀이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특히 한국의 유아는 미국 유아에 비하여 의자에 앉은 교육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표 8〉 보육시설 별 기거양식 비교 단위: 초

보육시설	좌식지속시간		입식지속시간	
	M(SD)	F	M(SD)	F
A	153.9(113.3)a	5.109***	146(73.3)c	5.817***
B	126.3(110.6)ab		173.8(110.6)bc	
C	114.4(89.7)abc		185.6(123.5)abc	
D	71.2(100.2)c		228.8(100.2)a	
E	99.0(110.6)bc		201.0(110.6)ab	

***p<.001
같은 알파벳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

〈표 9〉 한미 유아의 놀이유형

놀이유형	한 국	미 국
기능놀이	뛰기, 달리기, 밀기, 텅굴기, 장난감 밀고 다니기, 총싸움 등	뛰기, 텅굴기, 장난감 자동차 타기, 시어소 만들어 타기, 모래놀이, 물놀이 등
구성놀이	블록(레고, 와플 등)조립	블록(큰 목재, 레고) 조립
역할놀이	아기돌보기, 부엌놀이, 병원놀이, 로봇놀이, 시장놀이, 기차놀이 등	아기돌보기, 부엌놀이, 취침놀이, 소방차놀이, 고양이 놀이, 판매놀이, 병원놀이, 청소놀이, 우체부놀이, 전화놀이, 측정놀이, 역할의상 입고 흉내내기(아가씨, 카우보이, 소방수) 등
교육적놀이	책읽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글씨쓰기, 퍼즐 등	책읽기, 그림그리기, 카드놀이, 글씨, 퍼즐 등

* 놀이를 하지 않고 다른 아이를 보는 '응시' 등의 행동은 제외하였다.

〈표 10〉 한미 유아의 기거양식별 놀이유형 차이

빈도(%)

		놀이유형				
		기 능	구 성	역 할	교 육 적	계
선 자 세	한 국	62(49.6)	24(19.2)	24(19.2)	15(12.0)	125(100.0)
	미 국	64(60.4)	2(1.9)	22(20.8)	18(17.0)	106(100.0)
	계	126(54.5)	26(11.3)	46(19.9)	33(14.3)	231(100.0)
$\chi^2 = 17.563^{**}$						
의 자 자 세	한 국	3(5.1)	8(13.8)	7(12.1)	40(69.0)	58(100.0)
	미 국	9(22.5)	1(2.5)	8(20.0)	22(55.0)	40(100.0)
	계	12(12.2)	9(9.2)	15(15.3)	62(63.3)	98(100.0)
$\chi^2 = 10.795^*$						
바 닷 자 세	한 국	19(16.0)	71(59.7)	21(17.6)	8(6.7)	119(100.0)
	미 국	34(46.6)	7(9.6)	22(30.1)	10(13.7)	73(100.0)
	계	53(27.6)	78(40.6)	43(22.4)	18(9.4)	192(100.0)
$\chi^2 = 48.783^{***}$						

*p<.05, **p<.01, ***p<.001

〈표 11〉 한미 유아의 성별 기거양식별 놀이유형

빈도(%)

국 가	자 세	성 별	놀이유형				
			기 능	구 성	역 할	교 육 적	계
한 국	선 자 세	남 아	45(68.1)	13(19.7)	4(6.1)	4(6.1)	66(100.0)
		여 아	17(28.8)	11(18.6)	20(33.9)	11(18.6)	59(100.0)
		계	62(49.6)	24(19.2)	24(19.2)	15(12.0)	125(100.0)
	$\chi^2 = 26.436^{***}$						
	의 자 자 세	남 아	2(11.8)	6(35.3)	1(5.9)	8(47.1)	17(100.0)
		여 아	1(2.4)	2(4.9)	6(14.6)	32(78.0)	41(100.0)
		계	3(5.2)	8(13.8)	7(12.1)	40(69.0)	58(100.0)
	$\chi^2 = 12.517^{**}$						
	바 닷 자 세	남 아	12(15.8)	52(68.4)	5(6.6)	7(9.2)	76(100.0)
여 아		7(16.3)	19(44.2)	16(37.2)	1(2.3)	43(100.0)	
계		19(16.0)	71(59.7)	21(17.6)	8(6.7)	119(100.0)	
$\chi^2 = 19.244^{***}$							
미 국	선 자 세	남 아	37(77.1)	2(4.2)	3(6.3)	6(12.5)	48(100.0)
		여 아	27(46.6)	0(0.0)	19(32.8)	12(20.7)	58(100.0)
		계	64(60.4)	2(1.9)	22(20.8)	18(17.0)	106(100.0)
	$\chi^2 = 16.401^{**}$						
	의 자 자 세	남 아	5(33.3)	1(6.7)	2(13.3)	7(46.7)	15(100.0)
		여 아	4(16.0)	0(0.0)	6(24.0)	15(60.0)	25(100.0)
		계	9(22.5)	1(2.5)	8(20.0)	22(55.0)	40(100.0)
	$\chi^2 = 3.755$						
	바 닷 자 세	남 아	23(67.6)	3(8.8)	5(14.7)	3(8.8)	34(100.0)
여 아		11(28.2)	4(10.3)	17(43.6)	7(17.9)	39(100.0)	
계		34(46.6)	7(9.6)	22(30.1)	10(13.7)	73(100.0)	
$\chi^2 = 12.239^{**}$							

*p<.05, **p<.01, ***p<.001

2) 성별에 따른 놀이유형과 기거양식
성별에 따른 놀이유형과 기거양식에서 한국의 경우는 성

별 차이가 유의적이었고 미국의 경우는 의자자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11).

〈표 12〉 한미 유아의 연령별 기거양식별 놀이유형

빈도(%)

국 가	자 세	개 월	놀 이 유 형				
			기 능	구 성	역 할	교 육 적	계
한 국	선 자 세	48개월 이하	32(55.2)	12(20.7)	8(13.8)	6(10.3)	58(100.0)
		49개월 이상	30(44.8)	12(17.9)	16(23.9)	9(13.4)	67(100.0)
		계	62(46.9)	24(19.2)	24(19.2)	15(12.0)	125(100.0)
	$\chi^2 = 2.697$						
	의자자세	48개월 이하	1(5.0)	2(10.0)	3(15.0)	14(70.0)	20(100.0)
		49개월 이상	2(5.3)	6(15.8)	4(10.5)	26(68.4)	38(100.0)
		계	3(5.2)	8(13.8)	7(12.1)	40(69.0)	58(100.0)
	$\chi^2 = .542$						
	바닥자세	48개월 이하	7(12.7)	42(76.4)	6(10.9)	0(0)	55(100.0)
		49개월 이상	12(18.8)	29(45.3)	15(23.4)	8(12.5)	64(100.0)
		계	19(16.0)	71(59.7)	21(17.6)	8(6.7)	119(100.0)
	$\chi^2 = 14.958^{**}$						
미 국	선 자 세	48개월 이하	30(56.6)	2(3.8)	14(26.4)	7(13.2)	53(100.0)
		49개월 이상	34(64.2)	0(0.0)	8(15.1)	11(20.8)	53(100.0)
		계	64(60.4)	2(1.9)	22(20.8)	18(17.0)	106(100.0)
	$\chi^2 = 4.775$						
	의자자세	48개월 이하	5(33.3)	0(0.0)	6(40.0)	4(26.7)	15(100.0)
		49개월 이상	4(16.0)	1(4.0)	2(8.0)	18(72.0)	25(100.0)
		계	9(22.5)	1(2.5)	8(20.0)	22(55.0)	40(100.0)
	$\chi^2 = 10.155^*$						
	바닥자세	48개월 이하	17(42.5)	6(15.0)	12(30.0)	5(12.5)	40(100.0)
		49개월 이상	17(51.5)	1(3.0)	10(30.3)	5(15.2)	33(100.0)
		계	34(46.6)	7(9.6)	22(30.1)	10(13.7)	73(100.0)
	$\chi^2 = 3.111$						

*p<.05, **p<.01, ***p<.001

한국의 경우 선 자세에서 남아는 기능놀이를 가장 많이 하고, 여아는 역할놀이를 많이 하였다. 의자자세에서는 여아가 교육적 놀이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남아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 또 바닥자세에서는 남아는 구성놀이의 비율이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에 선 자세는 기능놀이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의자자세에서는 미국의 여아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적 놀이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닥 자세는 남아의 경우는 기능놀이가, 여아의 경우는 역할놀이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연령에 따른 놀이유형과 기거양식

연령에 따른 놀이 유형과 기거양식에서 한국의 경우는 바닥자세에서, 미국의 경우는 의자자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표 12).

한국의 경우 선 자세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능놀이가 가장 많고, 의자자세는 교육적 놀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49개월 이상의 경우가 48개월 이하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아 월령이 증가할수록 학습과 관련된 교육적 놀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바닥 자세에서는 구성놀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아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레고 등 블록 놀이 중심으로 천 매트를 깔 바닥에서 조립을 하는 등의 활동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 유아의 경우 선 자세에서는 기능 놀이의 비율이 높고, 의자자세에서는 49개월 이상에서는 교육적 놀이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바닥자세에서는 기능놀이의 비율이 높았으나 연령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4) 시설별 놀이유형과 신체자세

시설 별 놀이유형에서 각 자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표 13). 선 자세는 모든 보육시설에서 기능놀이 시 가장 많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C와 D 시설의 경우가 높았다. 의자자세는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교육적 놀이에서 가장 많았는데 C 시설의 경우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바닥자세는 한국의 시설에서는 구성놀이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 D 시설의 경우에는 기능놀이에서, E 시설은 기능놀이, 역할놀이에서 바닥자세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었다.

〈표 13〉 한미 유아의 시설별 기거양식별 놀이유형 빈도(%)

자세	시설	놀이 유형				
		기능	구성	역할	교육적	계
선 자세	A	21(45.7)	12(26.1)	8(17.4)	5(10.9)	46(100)
	B	23(45.1)	9(17.6)	13(25.5)	6(11.8)	51(100)
	C	18(64.3)	3(10.7)	3(10.7)	4(14.3)	28(100)
	D	50(63.3)	0(0.0)	12(15.2)	17(21.5)	79(100)
	E	14(51.9)	2(7.4)	10(37.0)	1(3.7)	27(100)
	계	126(54.5)	26(11.3)	46(19.9)	33(14.3)	231(100)
$\chi^2 = 35.834^{***}$						
의 자세	A	1(7.1)	2(14.3)	2(14.3)	9(64.3)	14(100)
	B	2(9.5)	5(23.8)	5(23.8)	9(42.9)	21(100)
	C	0(0.0)	1(4.3)	0(0.0)	22(95.7)	23(100)
	D	9(27.3)	1(3.0)	3(9.1)	20(60.6)	33(100)
	E	0(0.0)	0(0.0)	5(71.4)	2(28.6)	7(100)
	계	12(12.2)	9(9.2)	15(15.3)	61(62.3)	98(100)
$\chi^2 = 44.388^{***}$						
바닥 자세	A	4(8.9)	33(73.3)	5(11.2)	3(6.7)	45(100)
	B	11(25.0)	20(45.5)	10(22.7)	3(6.8)	44(100)
	C	4(13.3)	18(60.0)	6(20.0)	2(6.7)	30(100)
	D	27(52.9)	1(2.0)	14(27.5)	9(17.6)	51(100)
	E	7(31.8)	6(27.3)	8(36.4)	1(4.5)	22(100)
	계	53(27.6)	78(40.6)	43(22.4)	18(9.4)	192(100)
$\chi^2 = 64.94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기거양식이 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유아를 대상으로 기거양식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유아의 기거양식과 물리적 환경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보육시설 유아의 놀이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고 물리적 환경의 정보 등은 직접 관찰 및 보육시설의 교사들을 통하여 입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보육시설의 기거양식 관련 교실환경 특성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교실면적이 좁고, 교실바닥의 마감재는 합성수지 장판에 일시적으로 까는 천 매트로 구성되며, 바닥난방으로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한다. 교실의 활동영역 개수는 시설에 따라 2~3개로 영역별 경계는 불명확하며, 테이블과 의자는 A, B 시설에서는 8인~10인 정도 앉을 수 있게 2개 정도 배치된 반면 C 시설에서는 4인용, 6인용의 소집단으로 모일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미국의 교실은 한국에 비하여 면적이 넓고, 바닥은 합성수지 타일에 카펫이 일부 영역에 깔려 있으며, 온풍난방으로 실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나 일부 벗기도 한다. 활동영역의 개수는 많게는 14개, 적게는 7개이며, 그 경계는 교구장 등의 가구를 두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테이블과 의자

는 한국의 교실에 비하여 많으며 D 시설에는 4~6인의 소집단으로 앉을 수 있게 배치되었고, 이보다 면적이 좁은 E 시설에서는 8인용의 배치도 있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 유아의 기거양식을 보면 둘 다 입식시간이 유의적으로 더 길었는데 한국 유아는 입식이 좌식보다 약간 더 지속되나, 미국유아는 입식이 뚜렷하였다. 좌식시간은 한국 유아가 미국 유아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길고, 입식은 미국유아가 한국 유아에 비하여 길다. 성별 기거양식을 보면 한국의 남아는 좌식과 입식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여아는 좌식과 입식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입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미국 유아는 성별에 관계없이 입식이 지배적이었다. 연령별 기거양식을 보면 한국 유아는 48개월 이하에서 좌식과 입식의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49개월 이상이 되면서 입식을 취하는 시간이 유의적으로 길어져 연령 증가에 따라 입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두 연령 집단 모두 입식 시간이 좌식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길어 연령 증가와 상관없이 입식 지배적인 양상이다. 보육시설별 기거양식은 한국의 A 시설과 미국의 D, E 시설 간에, B 시설과 D 시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여 A, B 시설 유아는 좌식이 오래 지속됨과 동시에 입식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반면 C 시설의 유아가 취하는 기거양식은 미국 시설의 유아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테이블의 개수 및 소집단 배치가 입식으로 유도했다고 판단되므로 물리적 환경과 기거양식과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놀이유형에 따른 기거양식은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기능놀이는 서서 하는 편이며, 교육적인 놀이는 의자에서 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한국의 유아는 미국보다 높았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 놀이는 한국의 유아는 구성놀이가 많으나, 미국의 유아는 기능놀이와 역할놀이가 많아 양국간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놀이유형과 기거양식을 보면 한국 유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미국 유아는 의자자세를 제외한 나머지 자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서서 하는 놀이에서 한국의 남아는 기능놀이를 많이 하나, 여아는 역할놀이를 하는 시간이 더 지속되어 성별 놀이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하는 놀이에서 여아는 교육적 놀이를 많이 하나 남아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바닥에 앉은 놀이는 남아의 경우 구성놀이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미국의 경우에도 서서 하는 기능놀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미국 여아 역시 교육적 놀이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아는 바닥에 앉아서 하는 기능놀이를, 여아는 역할놀이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놀이유형과 신체자세를 보면 한국에서는 서서 하는 놀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능놀이를 가장 많고, 의자에 앉은 놀이는 만 5세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아 월령이 높을수록 학습과 관련된 교육적 놀이가 더 많았다. 바닥면을 이용하는 놀이는 구성놀이에서 남아의 경우가 유의적으로 높는데 레고 등 블록 놀이 중심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서서 하는 놀이는 남·여아 모두 기능놀이의 비율이 높고, 의자에 앉은 놀이는 만 5세 이상에서 교육적 놀이의 비율이 높았다. 바닥면을 이용하는 놀이는 연령별로 놀이유형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시설 별 놀이유형에서 각 기거양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서서하는 놀이는 모든 보육시설에서 기능놀이 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보육시설에 상관없이 교육적 놀이는 의자에 앉아서, 바닥면을 이용하는 놀이는 한국의 경우 구성놀이에서, 미국의 경우 D 시설은 기능놀이, E 시설은 기능놀이, 역할놀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의자에 앉아서 하는 놀이는 나머지 시설에 비하여 특히 C 시설에서 교육적 놀이가 많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거양식과 물리적 환경, 성별, 연령, 놀이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육시설의 교실은 바닥난방, 합성수지재 장판으로 마감되어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좌식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교실의 가구는 대체로 테이블과 의자는 대집단 단위로 개수가 적게 배치되어 바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활동영역의 경계는 불분명하여 필요에 따라 가구를 한 쪽으로 밀쳐두고 바닥면적을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천 매트를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영역을 만들기도 제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 하에서는 입식생활보다 좌식생활이 쉽게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이블의 개수가 더 많고, 소집단으로 배치된 C 시설에서는 입식이 더 지속되므로 물리적 환경의 구성 정도에 따라 유아의 기거양식은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미국의 보육시설은 온풍난방, 합성수지타일 위에 카펫이 깔려 있어 신발을 신고 생활하도록 물리적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테이블과 의자 등의 입식가구는 종류와 수가 많으며, 활동영역의 경계는 기능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구분되어 공간별 활동은 고정되고 융통적인 공간 사용은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활동영역별로 구비된 테이블과 의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므로 입식자세가 우세하게 된다.

둘째, 한국과 미국유아의 기거양식은 유아기부터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 유아의 경우 연령과 성별이 관계하고 있다. 한국의 유아는 48개월 이하에서는 좌식이 많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식으로 변화되며, 여아는 남아에 비하여 의자에 앉는-학습관련 활동 위주- 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러한 연령별, 성별 기거양식 차이를 반영한 물리적 환경이 배려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유아는 성별, 연령별 차이가 없이 입식이 지배적이어서 입식 문화권의 물리적 환경이 입

식 지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 조립 등의 놀이에서는 카펫을 깔 바닥면을 이용하는 좌식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놀이유형에 따른 기거양식은 문화, 성별, 연령, 보육 시설에 따라 달라졌다. 한국 남아는 기능놀이와 구성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넓은 바닥면이 필요하여 좌식이 되나, 연령이 증가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교육적 놀이가 빈번해져 입식으로 된다. 특히 여아의 경우는 남아에 비하여 입식이 강한 경향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5세 이하에서는 놀이 유형과 기거양식을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5세 이상에서는 교육적 놀이가 증가하므로 입식가구의 확보가 우선되고, 아울러 필요 시 바닥면을 사용할 수 있게 가구의 량 및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바닥면에 까는 천 매트 크기는 놀이 가능한 유아의 수를 결정하게 되므로 다양한 크기의 천 매트를 제공함으로써 놀이집단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의 놀이유형에 따라 기거양식이 달라지므로 다양한 놀이를 유도하기 위해 입식공간과 좌식공간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유아의 기거양식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유아는 연령 증가에 따라 입식을 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아의 입식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기거양식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구성에 따라 기거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유아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교실 면적, 가구의 량 및 배치, 바닥 마감재, 활동영역 공간 계획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종인(1995). 도시 공동주거 안방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 17-25.
- 신준희(2001). 놀이 형태에 따른 미취학 아동용 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 228-234.
- 안옥희, 정미란(1999). 한·일 여대생의 주생활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 56-61.
-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열화당.
- 이희봉(1998). 재미교포 주거 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 현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장상옥, 신경주(1995).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1) -주생활행위 시 자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6(2), 1-12.

- 장상옥, 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그 만족도 및 전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39-50.
- 장상옥, 신경주(2004). 제한 서구인의 주거공간 사용 형태 및 요구 분석 -현관, 욕실, 세탁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6), 13-22.
- 장혜순(2004). 유아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정무웅(2001). 건축문화와 환경행태. *건축*, 45(6), 10-15.
-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9), 79-91.
- 今井範子(1986).起居様式の問題. *家庭科教育*, 7月増刊号, 94-100.
- 山折哲雄(1981). *坐の文化論*. 佼成出版社.
- 塩谷壽翁(1997). 身體お低くする文化と高くする文化.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第495号, 139-146.
- 澤田知子(1995). *ユカ坐 イス坐-起居様式にみる日本住宅インテリア史-*. 住すまいの 圖書館出版局.
- Bakeman, R., & Gottman, J. M. (1992). *Observing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Sequential Analysi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D. H., Stern, V., & Balaban, N. (2001). 박경자 역. *유아행동관찰*. 서울: 학지사.
- Greenman, J. (1988). *Caring spaces, Learning Places: Children's Environments That Work*. Redmond, WA: Exchange Press Inc.
- Hewes, G. W. (1955). World Distribution of Certain Postural Habits. *American Anthropologist*, 57(2), 231-244.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Development*. NY: Longman.
- Rapoport, A. (1969).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Roopnarine, J. L., Johnson, J. E., & Hooper, F. H. (1994). *Children's Play in Diverse Culture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5년 9월 30일 접수, 2006년 3월 13일 채택)